

사람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주력'

농어촌공, 현장 접점부서 대상 '변경의 혁신 토론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2일 충남 태안군 송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김인식 사장, 경영진, 현장접점부서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경의 혁신(革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경의 혁신 토론회는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조직문화 정착과, 현장접점에서 애로사항과 잘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우선, 애로사항이자 미흡한 사례에 대한 직원의 개선의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의제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충남서북부 지역의 항구적 가뭄 해소 방안, 갯벌유에 세우는 송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안전시공을 위한 해결과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사에 대한

불만과 요청사항이 논의됐다.

김사장은 이에, 현장직원과 점심 도시락을 나누며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으며, 실천사례를 공유 통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김종필 충남지역본부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충남도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성공사례를 발표가 이어졌다.

충남도와 함께 추진한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보전과 체계화된 수량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김사장은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추진경과와 효과에 대해 경청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다.

김인식 사장은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은 농



한국농어촌공사가 22일 충남 태안군 송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변경의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며, "현장접점 즉 변경(變境)에서부터 혁신과 개선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지난 3월 취임이후 '경영(經營)에서 공영(公營)으로'를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9개도의 34개 주요현장을 돌며 지역주민, 지자체, 현장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중심, 사람중심의 농정 변화 흐름에 맞춰 농어촌공사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신축 전주역사 지하주차장 건립 주장

전주지역 상공인들이 신축 전주역사의 주차장은 반드시 지하주차장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0일 신축 전주역사에 지하주차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국철도공사에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타 지역에 비해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열악한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들은 제한된 도시개발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주시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며, 전주한옥마을은 연

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러한 시민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뒤로한 채 전주역 주차장 조성 방안이 있어 예산초과 등을 이유로 주차타워 건설을 주장하는 코레일의 입장은 어렵게 시민들이 일궈온 천년고도 전주시의 이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선홍 회장은 "철도는 나후된 전북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의 미중추 역할을 하는 필수 사회간접 시설로서 백 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 수립 필수적이다"면서, "새로 신축되는 전주역사의 주차장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전주시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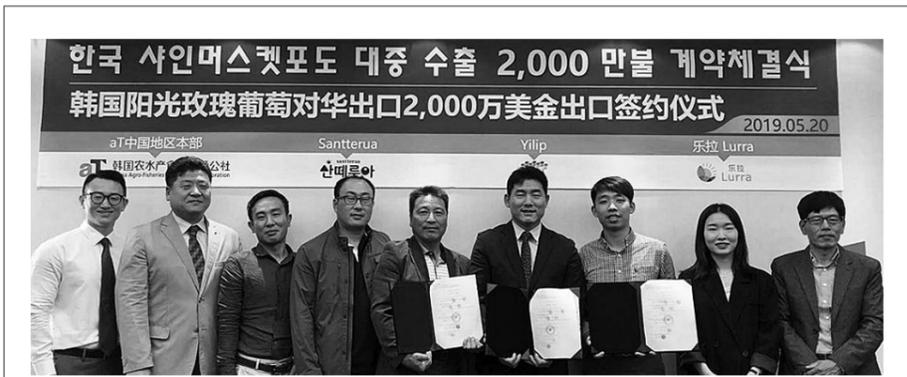
전북농협,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 나서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와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농촌현장지원단은 22일 남원시 주천면, 대강면에 거주하는 고령어르신택 3곳에 노후된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생필품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택의 노후화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께서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하여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여 지역본부, 남원시지부, 남원축협,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지역 도배, 장판 업체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진행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2018년 3월부터 '농촌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돌봄 어르신 중 취약농가를 선정하여 종합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도배, 장판, 페인트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이다.

전북지역본부는 "농업인행복콜센터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의 생활불편 해소부터 사고 예방까지 농업, 농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난 20일 '산테루아 영농조합' 과 중국 과일 전문 바이어인 'Lurra(拉)' 가 2,000만불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샤인머스켓 포도, 중국인 입맛 사로잡다

농식품부 · aT, 국산 농가와 중국 과일 바이어 간 2000만달러 계약서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계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내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농가인 '산테루아 영농조합' 과 중국 과일 전문 바이어인 'Lurra(拉)' 간 향후 4년간 국산 샤인머스켓 포도 1,200톤(약 2,000만달러, 2018년 수출액 기준)을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 5월 20일 성사시켰다.

샤인머스켓 포도는 절절까지 한꺼번에 먹는 거봉 크기의 씨 없는 청포도로 씹을수록 특유의 망고향이 입안에 퍼져 일명 '망고포도'로도 불린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는 한 송이에 6~9만원 내외의 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로 최근 고급매장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중국시장에 첫 상륙한 한국 샤인머스켓 포도는 2018년 중국 주요 온 오프라인 신선식품 유통채널에 입점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거봉, 캠벨얼리 대비 4배 이상 수출가격이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가 2018년 대중포도수출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같은 해 포도 수출액은 전년대

비 1,888% 증가하여 162만 달러(약 100톤)를 달성했다.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산 샤인머스켓 포도의 최초 대중 수출을 지원했고 포도를 대중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바이어 팸투어 및 현지 주요 유통매장 입점을 진행해 BEG OLE 징동(京) 번라이성취(本生活) 춘보(春播) 등 중국 주요 온 오프라인 신선식품 유통채널과 프로모션을 진행해 한국 샤인머스켓 포도의 중국 시장 소비기반을 확대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 전주점, 고용노동정책 확산 추진 '앞장'

롯데백화점전주점(점장조환섭)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고용노동정책의 현장 인착 및 확산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22일 롯데백화점교육장에서 거행된 3대 고용노동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 생활 균형 등 워라밸 확산, 청년일자리, 고용정책 홍보협력, 노사정 사회적책임 실천선언 등 정책확산과 선도적 사례를 구축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지청장, 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담당,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등이 참석하여 청년일자리 등 고용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같은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전주점장, 노동자 대표, 롯데시네마 관장 등이 협약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파트너사 소상공들도 행사에 동참하여 노사상생 및 건전한 직장문화 등 성숙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백화점 조환섭 전주점장은 "일·생활균형 직장문화가 확산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당사가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3대 고용노동정책이 지역 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 어린이집총연합회, 업무제휴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 본점에서 전주시 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진 부행장,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은행과 전주시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육교사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함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제일선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면 덩달아 보육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진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 교직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은행의 노력에 감사하며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주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휴금융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